

# 위기에서 빛난 광산구 '상생방역'

### 외국인 '묻지마 접종' 3800여명 신청...한번 접종 안센 활용 접종위탁 의료기관 운영, 이번달 완료 계획...방역 사각 해소

광주 광산구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추진해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들어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묻지마 접종'을 신청받은 결과,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3800여명이 접수했다.

이는 지난 8월 광산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어선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광산구에 등록된 외국인주민은 1만9200여명(2019년 11월 기준)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주민 3만3200여 명의 절반이 넘는다. 미등록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제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집단생활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묻지마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번 '묻지마 접종'의 경우 한 번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안센백신을 활용, 9월부터 10월까지 2800여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 인원은 2800명으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배정 받은 안센 백신

2804회 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외국인 백신 접종은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미등록 외국인도 건강보험가입과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입국일지)만 있으면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는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묻지마 접종' 추진에 외국인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첫날에만 1550여 명이 몰렸고, 접종 장소에 3일 만인 지난달 25일 기준 신청 인원이 3000여 명을 넘어선다며 조기 마감됐다.

광산구는 백신 추가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 신청까지 받은 상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8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광산구 외국인 주민은 1169명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 광산구의 적극 행정이 그동안 노출을 꺼려했던 외국인 주민을 제도권으로 이끌어 내는 결과까지 얻었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방역상황의 추이를 감안해 구체적인 외국인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번달까지 모두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광산구는 또 광주 최초로 '외국인 친화적 접종위탁 의료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성삼병원, 수완센트럴병원 2곳을 지정, 수요일에는 야간 시간대까지 접종하고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감안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예진표, 안내문, 외국인 안내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통장단, 재능기부단 등은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등에서 통·번역을 지원하며 방역 골든타임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사람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상생과 배려로 방역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추진해 감염 확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또 광주 최초로 '외국인 친화적 접종위탁 의료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성삼병원, 수완센트럴병원 2곳을 지정, 수요일에는 야간 시간대까지 접종하고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감안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예진표, 안내문, 외국인 안내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통장단, 재능기부단 등은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등에서 통·번역을 지원하며 방역 골든타임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사람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상생과 배려로 방역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추진해 감염 확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최근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번호 발급 현황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나부터 다회용” 광산구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든다

### 1회용 컵 청사 반입·사용 금지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보호 앞장

광주 광산구가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나섰다.

광산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나부터 다회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통한 자원순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1회용품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광산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하루 2개를 기준으로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면 1인 기준 연간 3.5kg의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다회용 컵 사용의 필요성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일상과 업무에서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9월부터 1회용컵 청사 반입을 금지하고, 각 부서는 물론 공공기관 및 구 지원 행사 시 다회용 식기 의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다회용 컵을 빌려주는 대여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반을 운영해 연 2회 실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

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여야만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며 "지구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1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자원순환 실천 시민운동인 '용기내 광산'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청사 1층에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광주소방, 인공지능 구급차 현장실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구급대원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앞으로 3개월 간 5개 119안전센터 구급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검증을 위한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환자 영상

과 생체신호 및 대원의 음성 자료를 수집·분석해 인공지능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이송병원 추천, 최적의 차량경로 안내,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사회적경제 쇼핑몰 '가치사세' 오픈

### 추석맞이 선물전·할인행사...사은품 증정·포인트 적립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일 "이날부터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사세'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치사세' 쇼핑몰은 '가치 있는 광주-같이 사는 광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쇼핑몰에는 광주사회적경제기업의 1200여 개 제품과 서비스가 입점하며, 9월1일부터 명절맞이 선물전과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신규 회원가입 축하쿠폰과 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및 9월 한 달간 첫 구매 고객 50명과 9월 최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및 포

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쇼핑은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마을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판매장인 '마을기업 상생상' (홈플러스 계림점 1층)에서도 개점 1주년 및 명절이벤트로 1+1 행사를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가치사세 쇼핑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한다점빵' 네이버스토어 오픈

광주 광산구 사회적경제 온라인스토어인 '한다점빵'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문을 열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성장을 돕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개설을 추진해 왔다. 광산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이어받아 이날 오픈한 '한다점빵'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 비용 없이 온라인 주문 및 발송, 라이브커머스 등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광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20곳(사회적기업 8, 마을기업 8, 협동조합 2, 자활 2)이 입점, 터치커피, 빵, 수공예품, 화훼류 등 1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앞서 60여 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기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시민의 착한소비 동참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도 벌이고 있다. '한다점빵' 오픈 및 추석맞이 행사로 ▲9월 한 달간 택배비 무료 ▲특별할인행사 ▲SNS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 다.

온라인 판매 특성을 살려 오픈 초기에 검색광고, SNS홍보, 판촉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다점빵'은 네이버에 검색이나 링크(https://smartstore.naver.com/handacoop/)로 접속하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자동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